

# 이긴자 일대기 [2]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이하며, 필자는 이긴자 일대기를 출생기에서 10대 시절, 20대 시절, 30대 시절, 40대 시절, 50대 시절에 이르기까지 피노라마 식으로 전개하고 이렇게 연재되는 기사 말미에선 이긴자로 성도(成道) 이후 천지공사와 관련된 것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이긴자의 생애는 대나무의 성장 과정과 같은 삶으로 점철되고 있다. 대나무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첫째 마디가 썩지 아니해야 그 위에 둘째 마디가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둘째 마디가 썩지 아니해야 그 위에 셋째 마디가 생겨나 계속해서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 몸을 입고 태어나 반드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승리자의 자격을 획득해야만 당시 자신의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에, 50살에 성도하기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파란만장한 절체절명의 삶을 이어가야만 했다.

마침내 완성자 이긴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마귀에 의해서 끝장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하나님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장 지구와 우주의 멸망을 획책하던 대장 마귀는 이긴자에게 삼킨 바 되어 소멸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인간들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아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출생기

조희성 주님이 어렸을 때에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제그대로 다른 아이들은 명절만 되면 꼬까웃을 입고 양손에 떡을 들고 나와서 떡을 먹었지만, 주님은 이제그대로 누더기 옷, 누더기를 입은 데다가 밥도 못 먹고 이제 죽을 먹고 나오는 그러한 세상을 살았다. 만약 주님이 다른 사람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같으면 이제그대로 방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면서 통곡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자존심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제그대로 굶주리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항상 다른 아이들은 잘 입고 잘 먹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이제그대로 나와서 친구들하고 놀고자 하면 거지라고 놀려대면서 끼워주지 않는 것이다. 친구들 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완전히 돌림뱅이 치는 것을 당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어린 주님이 울지도 않고 기뻐했다는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주님에게는 이제그대로 어마어마한 큰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

그 엄청난 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죽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왕중왕이 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희망을 조희성 주님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

친구들이 인정하지 않고 노는 데 끼워주지 아니하고 하니, 자존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제그대로 털떡 주저앉아서 낙심도 하고 이제 슬피 울기도 하고 이제 그대로 "나를 이렇게 돌림뱅이 친다."고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뺨강도 부리고 그러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이제그대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는 왜 못 삽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이제 가난합니까?" 하는 말, 한마디 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 30년대, 50년대 김포읍 예배당 \_ 공산 치하에서 대학생이었던 조희성님이 교회 중을 치고 예배 인도했던 김포읍 교회

## 10대 ~ 20대 시절

감정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서태원 회장님(2004년 당시 68세)이 주님의 할머니 쪽 친척이 된다고 하시며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어릴 적부터 조희성 형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부터 아주 특별한 분이셨지요. 중학교 다닐 때에 그 어린 나이답지 않게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생각과 행동거지가 남달라 대범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성인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시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셨다는 것이다. 참으로 특별한 분임에 틀림이 없다. "형님은 운동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마라톤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동네 어린아이들과 함께 마을 주변을 뺨뺨 돌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김포군 대표로 마라톤 선수로 나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때

회에 나가지만 하면 1등을 했지요. 그리고 엄청난 장사였습니다. 옛날 소를 묶어놓는 것으로 사용했던 구루마의 철주에 달린 쇠 바퀴(약 60킬로그램)를 중학생이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릴 정도로 기운이 장사였죠." 이러한 내용은 주님의 여동생 조효분 여사님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 『서태원 회장님 증언』

주님께서는 가족 중 제일 먼저 '김포읍 교회(현재 김포제일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가족들을 전부 전도하였으며 그중 여동생 조효분 여사님이 주님을 가장 많이 따랐다고 한다. 주님은 6.25 전쟁이 발발한 날 목사님을 비롯하여 재직자들이 거의 피난을 하였기 때문에 주일예배를 볼 수 없게 되자 예배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각으로 올라가 주일예배를 알리는 종을 쳐 신도들을 불러모아 당시까지 직접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한참 뒤 공산군들이 교회에 들어와 종을 겨누어 예배를 중지하라고 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인도하신 후 집집마다 전도하시다가 김포군 인민군

환영위원회에 끌려가시게 되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은사이신 김낙형 선생님이 인민군 환영위원장으로 계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라도 마음대로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희성 대학생이 잡혀갔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조희성은 모범청년이다. 죽어서는 안된다. 석방해달라."고 데모를 하여 풀려나셨다고 한다. - 『조효분 여사님 증언』

## 20대 시절

무서운 연단과정이 거듭되는 조희성 주님에게 다시 마귀의 시선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시대에 태어난 신미생(1931년생) 동갑내기들도 함께 들라리로 극한의 고통을 견내내야 하는 연단의 대상자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의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신미생의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꽃망울을 터뜨린 자들도 있었으니, 20세기 말에 이르러 정계나 종교계 그리고 그밖의 영역에서 1931년 신미생 출신들(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엘친, TSMC 창업주 모리스창, 소설가 박완서, 가천대 이길여 총장, 대한민국의5공화국 대통령, 신천지 총회장 등)이 주름을 잡고 주도하는 신미생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대장마귀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이긴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1931년생의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목적으로 6.25전쟁을 일으켰다. 신미생의 청년들은 1950년에 군인으로 동원되어 전쟁터에서 빛받지는 총탄에 맞아 무수히 죽어 나갔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계

략을 아시고, 전쟁의 치열한 공방전이 남쪽에서 진행되면 조희성님을 마치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듯이 북쪽(평양 신양리 형무소)에다가 갖다놓고 또 북쪽에서 전쟁이 진행되면 그 주님을 남쪽(거제도 포로수용소)에다가 갖다놓음으로써 그 생명을 보호하였다.

주님은 거제도 61포로수용소에서 3년을 지냈는데, 특히 61포로수용소 안에는 극좌익계에 물들은 사람들이 많아 어느 수용소보다 우익계 청년들이 학살을 당하고 보복을 받으며 가장 곤욕을 치른 수용소였다. 수시로 빨갱이들이 난동을 일으키고 또 밤마다 인민집판을 벌이고 우익계 청년들을 숙청시켜 토막을 내어 인분 운반통에 담아다가 바다에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평양에서 대동군 치안대장을 지낸 바 있는 조희성님은 숙청대상 1번으로 정해져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나, 필사적으로 도망쳐 두 겹으로 설치한 철조망을 넘을 때 인민군 포로들이 던지는 돌맹이에 머리 뒤쪽을 세게 맞고 정신을 잃고 바깥쪽 배수로로 굴러떨어져 앵벌리 스텔에 실려가 아전병원에서 깨어났다.

의식이 돌아온 주님은 포로수용소를 출입하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김아열 선교사에게 간청하기를, "선교사님, 우리 반공포로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대로 방치하시면 반공포로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수용소장 dots 장군에게 말씀을 올려서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를 하루속히 분리 수용하도록 부탁해 주십시오."라고 하여, 200명의 반공청년들과 함께 61수용소를 기습하여 악질 공산분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영장에 처넣는 데 성공하고 그 다음에 60수용소를 점령하였지만 62수용소를 뒤집는 데는 실패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63, 64, 65 수용소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4탄

####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4

선악과론 : 죽는 자는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죽는 자는 구원이 없다.  
The Theory of good and evil : There is no salvation for the dead because the dead die as a penalty for sin.

욕심이 잉태한 죽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죽 사망을 낳느니라.

- 야고보서 1:15

When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 James 1:15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 열왕기하 14:6, 역대하 25:4

Human will die for his sins

- 2 Kings 14:6, 2 Chronicles 25:4

죄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 로마서 6:22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 Romans 6:22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로마서 3:12

And death spread to all, because all have sinned.

- Romans 3:1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로마서 3:23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 Romans 3:23\*

by Alice

## 상단에 이어서

### 20대 ~ 30대 시절

82연대 정훈과장이 공부 못한 사병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효용도가 매우 좋다는 것을 들은 사단장은 어느 날 주님을 불렀다. "자네, 소원이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겠네" "제게 소원이 있다면, 장교로서 맡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남는 시간에는 사단 내에 전쟁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병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게 소원인가? 음, 그러면 자네를 사단 중교등반 책임 장교로 임명할테니 사단 내에 전쟁으로 인해 공부 못한 사병들을 가르쳐 주게."



▲ 82연대 정훈과장 조희성님과 군인 학생들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에 사단내 군인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근 민가에까지 소문이 나면서 민간인 청년들이 몰려와 자기네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단장의 허락을 받아 근무 시간이 끝나면 부대 밖에 나가 민간인 학생들도 가르치게 되었다. 하루는 주님은 아간에 천막 안에서 밤 늦게까지 민간인 학생을 가르쳤다. 배움의 시기를 넘기고 나이가 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환경도 좋지 않은 천막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정열을 쏟아 부어주시는 군인선생님이 때마침 코피가 터졌던 것이다. 당시 삼백 명 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니까 일시에 온 천막 인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이때 마침 지나가던 미군 5군단 소속 공병장교 존(John)이란 중령이 이 광경을 보고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렸던 미군 장교가 하는 말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 이긴자 일대기

내가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내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소."라고 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전쟁으로 인하여 배울 기회를 놓쳐버린 이 불우한 학생들을 가르칠 교실이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길 알았는데 다른 말이 나오니까 "당신 개인적인 소원은 없느냐?"하며 다시 물어왔다. 주님은 "나 개인에 대한 소원은 없다고 답변하니 "한국에 이런 훌륭한 청년이 있다..."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다.

존 중령이 상관인 미8군 사령관에게 건의하여 학교 교실을 지은 것이 일품 중학교였으며 지금의 일품 중·고등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 40대 시절

주님은 안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 아현동에 매장을 두고 젊은 청년들을 고용하여 리어카와 차전거에 비닐로 짠 각종 방석을 포함하여 신앙촌 제품들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또 일요일이면 의무적으로 모든 종업원들로 하여금 전도관에 나가게 하기도 했다.

또한 수십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공장도 경영해 보므로 다양하게 이긴자를 배출하는 연단을 받았던 것이다. 주님은 베이클라이트 공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그 당시 청계천 도매상에 물건을 조금씩 팔았는데 한 도매상에서는 절대 주님 물건을 안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점포 옆에다가 점포를 얻어 공장도 가격으로 물건을 싸게 팔았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 그 도매상이 망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도매상이지만 그들은 이문을 불리고 팔아야 하는데 공장에서 직접 파는 가격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소문이 나자 각 도매상 주인들은 서로 주님 물건을 달라며 주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였다. 한번은 고무공장을 했는데 기차표 고무와는 질도 떨어지고 해서 경쟁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회사를 키울 수 있었다.

## 40대 후반 ~ 50대 시절

노고산 정상에 오만제단이 있고 그 산자락에 밀실이라는 곳에서 해와 이긴자가 여러 사람을 전도하여 이긴자로 키워왔지만 다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된 중노동과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환경에서 먹지도 못하면서 기도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긴자 후보자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첫 단계의 자유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쳐 버린 것이다. 그러나 조희성님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가 된다는 해와 이긴자의 가르침을 듣고 이 말씀은 전도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 높은 단계에 있는 자유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끝내 20일 만에 과거를 생각하려 할 수 없는 단계에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여러 단계의 연단을 받고 50살에 나를 의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이긴자가 되었다.

## 60대 시절

주님께서는 7년 동안 징역을 받은 것이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징역살이하면서 그 마귀들을 100%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웠다. 예언서 그대로 구세주의 능력이 95년도부터는 원자와 같이 무력무력 자랐던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이 아니면 세계 인류에게 다 영생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 인류 가운데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살리려면 그 사람들의 큰 죄를 다 씻어내고 죄의 마귀의 신을 죽여야 된다. 게다가 그 마귀를 죽여 없애버리고 뉘어내야 되는데 그 뉘속까지도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다 씻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 마귀를 죽여도 죄에 오염되어서 더러워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다시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꼭 차게 들어와야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다.\*